

동익M스쿨		과목명	사서 주간테스트(10회)	한문	감독관 확 인
시행 5월 30일(일)		수험 번호	성 명		①
문항/ 시간	20/ 20분				

※ ()에 들어갈 글자를 아래의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(1 ~19)

邇, 卑, 祿, 位, 名, 度, 壽, 傾, 強, 身, 仁, 化, 禮, 倫, 知, 道, 文, 學, 教, 誠, 性, 善, 勇, 問,
辨, 行, 軌, 百, 千, 思, 明, 神, 鬼神, 誠之, 高明, 內外, 蒲盧, 正鵠, 悠遠

- 子曰 「射有似乎君子 失諸(), 反求諸其身.
- 君子之道, 辟如行遠必自(), 辟如登高必自().
- 子曰 「舜其大孝也與 德爲聖人, 尊爲天子, 富有四海之內. 宗廟饗之, 子孫保之. 故大德 必得其位, 必得其祿, 必得其名, 必得其壽. 故天之生物, 必因其材而篤焉. 故栽者培之, ()者覆之,
- 文武之政, 布在方策. 其人存, 則其政舉 其人亡, 則其政息. 人道敏政, 地道敏樹. 夫政也者, ()也. 故爲政在人, 取人以(), 脩身以(), 脩道以().
- 子曰 「好學近乎(), 力行近乎(), 知恥近乎().
- ()者, 天之道也 ()者, 人之道也. ()者不勉而中, 不思而得, 從容中道, 聖人也. ()者, 擇善而固執之者也.
- 博()之, 審()之, 慎()之, 明()之, 篤()之.
- 人一能之己()之, 人十能之己()之. 果能此道矣, 雖愚必(), 雖柔必().
- 自誠明, 謂之() 自明誠, 謂之(). 誠則明矣, 明則誠矣.
- 至誠之道, 可以前知. 國家將興, 必有禎祥 國家將亡, 必有妖孽 見乎蓍龜, 動乎四體. 禍福將至 (), 必先知之 不(), 必先知之. 故至誠如()
- 誠者非自成己而已也, 所以成物也. 成己, 仁也 成物, 知也. 性之德也, 合()之道也, 故時措之宜也.
- 故至誠無息. 不息則久, 久則徵, 徵則(), 悠遠則博厚, 博厚則().
- 非天子, 不議(), 不制(), 不考(). 今天下車同(), 書同(), 行同().
- 其次致曲, 曲能有誠, ()則形, 形則著, 著則明, 明則動, 動則變, 變則(), 唯天下至()爲能化.

[15~17] 다음 지문을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

子曰 (㉠)之爲德, 其盛矣乎 視之而弗見, 聽之而弗聞, 體物而不可遺. 使天下之人齊明盛服, 以承祭祀. 洋洋乎 如在其上, 如在其左右. 詩曰『神之㉡格思, 不可度思 矧可㉢射思』夫微之顯, 誠之不可揜如此夫.

15. ㉠에 들어갈 한자어를 고르시오 ()

- ① 仁義 ② 恭敬 ③ 中庸 ④ 鬼神 ⑤ 天地

16. 시에서 ㉡의 의미에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()

- ① 則 ② 規 ③ 擊 ④ 至 ⑤ 來

17. ㉢과 독음이 같은 한자를 고르시오 ()

- ① 闕 ② 祀 ③ 皙 ④ 椰 ⑤ 奢

[18~20] 다음 문장을 해석하십시오

18. 詩曰 神之格思, 不可度思 矧可射思 夫微之顯 誠之不可揜如此夫.

19. 日省月試, 旣稟稱事, 所以勸百工也 送往迎來, 嘉善而矜不能, 所以柔遠人也

20. 詩云 維天之命, 於穆不已 蓋曰天之所以爲天也. 於乎不顯 文王之德之純 蓋曰文王之所以爲文也, 純亦不已.

수고하셨습니다

(정답)

-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1. 正鵠 | 2. 邇, 卑 | 3. 傾 |
| 4. 蒲盧, 身, 道, 仁 | 5. 知, 仁, 勇 | 6. 誠, 誠之, 誠, 誠之 |
| 7. 學, 問, 思, 辨 | 8. 百, 千, 明, 強 | 9. 性, 教 |
| 10. 善, 善, 神 | 11. 內外 | 12. 悠遠, 高明 |
| 13. 禮, 度, 文, 軌, 文, 倫 | | 14. 誠, 化 |
| 15. ④ | 16. ⑤ | 17. ① |

18. 시경에 이르길 “신이 오는 것을 헤아릴 수 없는데 하물며 싫어할 수 있겠는가” 라 하였으니 은미한 것이 드러나니 성이 가릴 수 없음이 이와 같구나.

19. 날로 살피고 달로 시험하여 녹봉을 일에 걸맞게 하는 것은 백공을 권면하는 것이고, 가는 이를 전승하고 오는이를 맞이하여 잘하는 이를 좋게 여기고 잘 못하는 이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멀리있는 이를 회유하는 것이다.

20. 시경에 이르길 “하늘의 명이 아 심원하여 그치지 않는다”하였으니 하늘이 하늘이 된 까닭을 말한 것이요 “아아 드러나지 않겠는가 문왕의 덕의 순수함이” 문왕이 문이 된 까닭이 순수하여 또한 그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.